



진짜 너를
보여줘

지난달 20일 '2019 KUSF U-리그'가 대학농구를 시작으로 약 7개월간의 대장정을 알렸다. 우리학교 농구부는 첫 경기에서 중앙대에 79-74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관련기사 3면)

김혜준 기자 khj_hyejun@khu.ac.kr

총여 폐지 현실로... '성평등위'로 대체

〈총여학생회〉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지난달 21일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총투표에서 총여학생회(총여) 폐지 안건이 가결되며 우리학교 성평등 자치기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우선 지난해부터 산하 기구로 임시 운영하던 성평등인권위원회(성평등위)를 유지하되, 향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캠 성평등인권위원회 권주은(중국어학 2017) 위원장은 총투표 결과를 두고 "현재 성평등위의 상당수는 총학 임원들이 본인 업무와 성평등위 업무를 겸직 중에 있다"며 "앞으로 성평등위를 총학 산하의 기관으로 두면서, 임원진의 선임 등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형태를 구성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위는 일단 총여 복지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했던 시험기간 새벽 고양이 버스 운행, 여성용품 지원, 몰래카메라 탐지 및 예방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하나의 성별에만 치우치지 않고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가 총여 폐지는 2010년대에 들어 빠르게 진행돼, 올해 1월 연세대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그 기능이 모두 정지 상태에 있다. 현재 우리학교 서울캠, 한양대 총여가 회칙 상으로 남아 있지만 장기간 공석 상태로 실제 활동이 있지는 않다. 젠더사회학자 정고운(사회학) 교수는 "페미니즘 확산에 대한 백래시(backlash), 학생 사회의 붕괴 반영, 새로운 성평등 의제에 따른 변형 등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캠의 움직임에 서울캠퍼스(서울캠) 역시 존폐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서울캠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현재 유령 자치기구 재편성 및 의견수렴을 이행하기 위해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총여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학생자치기구 개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캠 총학은 총여 권한대행 인준이 부결된 상태다. 이에 김 회장은 "총학에서 몰래카메라 탐지 및 예방,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 등 총여 일부 사업들을 흡수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가 총여 폐지는 2010년대에

대행 체제가 해결되자마자 성폭력 담당위원장 임명 등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연세대 총학 권순주 회장 권한대행은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 후 기구의 개편을 논의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는 학내 인권센터와 연계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권 위원장 역시 이 같은 변화상을 두고 "총여 공백으로 인한 성평등위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다"며 "학생 또한 그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고 이러한 점이 투표 결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캠 성평등상담실은 "성평등위가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한다면 총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담론 형성 방향이 비판의 테제가 아닌 해결의 테제인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주체로서 많은 활동을 이끄는 사람과 외곽에서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양쪽 모두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총장직대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지원만 한다"

〈총장후보추천과정관리위원회〉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총장 선출은 개교 70주년 기념식이 열릴 5월 17일 이전에 치러질 것으로 점쳐져 있다. 지난해 이미 두 차례나 벌어졌던 '결렬 사태'를 딛고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구성원과 법인이었기에 관련 규정 입안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 등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다.

그러나 3월 초 법인이 제시했던 총장후보추천규정(규정) 초안에 담긴 독소 조항과 총장후보추천과 정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비롯한 절차적 문제が 지적되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많은 구성원이 관리위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규정에 의거해 총장후보추천과정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달 29일 박영국 총장직무대행(대행)이 관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열었다.

이날 그는 "지난 2월 25일 법인으로부터 받은 공문에 근거해 대학본부가 규정 초안에 대한 구성

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해당 공문에는 법인이 대학본부 측에 구성원과의 소통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현재 관리위원회가 발족되어 구성원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8일 열린 대학평의원회(대평의)는 관리위원회를 성토하는 자리였다. 이호창 서울부총장은 "법인이 지난 2월 12일 대학에 총장후보추천에 대한 전 과정 관리를 대학에 위임한다는 결정을 했다"

며 "이에 학교는 그 요청 사항과의 결 결과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면 오는 22일까지 법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평의 위원들은 이 부총장을 향해 "관리위원회가 참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 대평의 위원은 "왜 법인 측 권한 위임을 거절하지 않았느냐"며 "마치 대학본부가 우리 구성원 단체들을 관리하려 드는 것 같다"는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대행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각' 걱정으로 얼어붙는 '설국버스'

김지원 기자 kzw990327@khu.ac.kr

"기사님 죄송하지만 저 여기서 내려주시면 안될까요?" "죄송하지만 정해진 곳에서만 내려드릴 수 있어서요."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를 잇는 셔틀버스, 일명 설국버스 안에서는 간혹 서로 죄송한 일이 생긴다. 주차장이 된 꽉 막힌 도로에서 지각이 염려된 학생이 하차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국제캠 설립 초기부터 양 캠퍼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현재도 통학생, 다전공생, 교직원 편의를 위해 운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곧 구성원을 위한 복지다. 이를 방증하듯 셔틀버스 운행 시간과 노선은 학생 수업시간표를 반영하는 등 구성원 필요에 따라 꾸준히 개편되기도 했다.

수원에 거주하며 셔틀버스로 통학하는 손유빈(국어국문학 2018)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는데 지각으로 출결점수가 깎이면 속상하다"며 "시험 날에는 꼭 두새벽에 지하철을 탄다"고 말했다. 기사들도 편치만은 않다. 셔틀버스 김정동 기사는 "차가 많을 땐 평소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하기도 한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늦어 불이익을 받을까 마음이 조금해진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무엇보다 지연증명서는 학사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협조전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과장은 "단순히 지연증명서 발급이 최선은 아닌 것 같다"며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운행시간 변경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적합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성원들이 전달 받은 바와는 달리 관리위원회는 법인으로부터 아직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며 "지난 2월 12일 열린 이사회에선 대학본부의 행정 지원 권한에 대해, 의결이 아니라 논의가 이뤄졌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 논의 중에 있고 아직 정식으로 발족하지도 임시로 구성되지도 않았다"며 "관리위원회라는 명칭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 대행은 '대학본부는 총장 선출제와 관련한 논의 주체가 아니'라는 구성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수의회는 지난달 18일 "총장 선출제와 관련해 법인과 협의해 온 주체는 대평의이지 대학본부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도 "법인은

규정 초안 공개 이후 공식적인 대화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보여준 법인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대학본부 뒤에 숨어버린 독선적인 법인만이 남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3면으로 이어짐

시선

사설

선의와 성의

총장 선출을 두고 예상도 못한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총장후보추천과정위원회(관리위원회)라는, 지난해 구성원 합의안에는 없었던 의문의 단체가 등장하면서다. 총장후보추천규정(규정) 초안과 관련한 의혹들이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대학이 관리위원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학내 구성원 단체들은 저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도는 극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제도의 실행은 처음부터 불협화음을 내며 빼겨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국 총장직무대행(대행)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설명했다. 박 대행이 밝힌 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납득 못할 정도는 아니다.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선출은 적어도 경희대 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구성원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대학에게도 기본적 없는 길이다. 선출 프로세스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 이를 지원할 행정력은 분명 필요하다. 관리위원회라는, 구성원들이 가고자 하는 민주적 선출 과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름의 단체가 등장한 연유는 이러한 필요성이 넓은 시도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박 대행이 입을 열었다고 해서, 관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규정 안에서 행정지원을 위해서만 움직일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해서 구성원의 의혹이 불식될 리가 없다. 처음 보는 이질적 존재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계다가 이미 지난해 총장 선출제 논의 과정에서 범인은 한 차례 학교를 내세우며 논의의 초점을 흐리려 한 전적이 있다. 이 때 구성원들 안에 파리를 턴 의심은 또다시 법인이 대학을 내세우는 지금의 구도속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자리를 보고 놀란 사람은 솔루션을 보고도 놀란다.

의심을 더욱 키우는 것은 침묵이다. 규정과 관리위원회를 두고 구성원 단체들이 연일 성명과 입장장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들이 대상으로 지목한 범인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의유가 있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 때문에 의심한답니다. 의심이란 스스로 생겨나는 괴물이니까요.” 세이스피어 〈오셀로〉의 구절이다. 설명이 없으니 의혹만이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26일 교무위원회가 ‘축하연’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의심까지 나온 것을 그저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의심을 푸는 길은 하나다. 책임과 권한을 갖춘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풀어야 할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정책토론과 공청회 등을 제외시킨 이유,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자율성, 초빙위원회의 존재 등 규정과 관련한 각종 조항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관리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왜 범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학에 의견수렴을 맡겼는지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의심은 불신을 넣고 불신은 건강한 논의를 방해한다. 논의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이를 믿지 못하는데 어떠한 논의가 가능하단 말인가. 박 대행은 인터뷰 말미에 좋은 총장을 선임해 학교의 발전을 모색하자는 구성원의 선의를 믿는다고 답했다. 구성원의 선의를 믿는다면, 응당 이에 답해야 할 이도 성의를 보이기를 바란다.

▶

대학은 지금

대학사회 민주주의, “불안정한 시기는 변화 피할 중요한 전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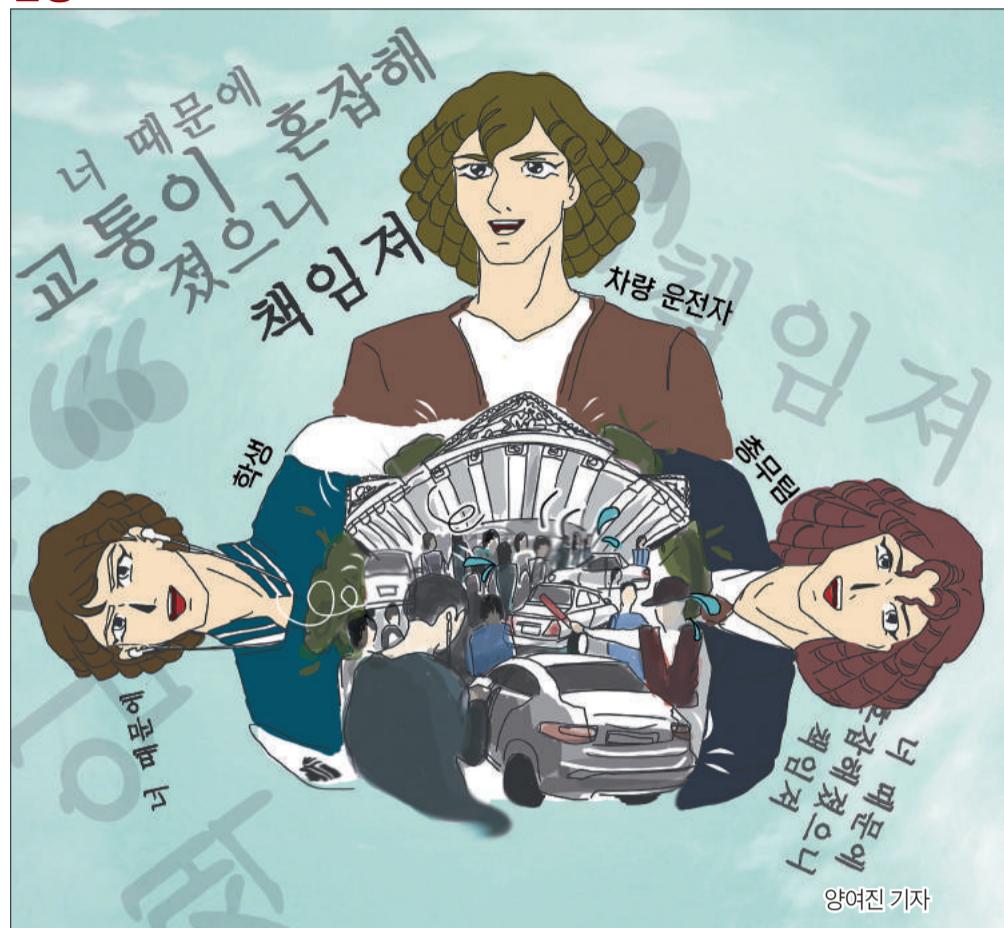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서울대 학생회 보궐 선거가 열렸다.(일부 단과대에서 학생회 선거/대학신문, 2019.3.24.) 생활대 학생회 선거는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다. 그동안 네 차례나 선거가 무산돼 연석회의 체제로 운영됐던 생활대는 이번 선거 무산으로 연석회의 체제를 이어간다. 자연대는 투표율 저조로 두 차례 연장투표를 진행했다. 연장투표 마지막 날인 3월 25일 개표 결과 총 투표율 50.64%로 선거 성사 기준을 달성해 단일선본 ‘바람’이 당선됐다.

서강대는 총학생회(총학) 강변석 회장 권한정지 후 양현우 임시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양현우 임시 의장에게 묻다/서강학보, 2019.3.23.) 양 임시 의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만평



이 주의 주제 - 학내 교통·표지판 실태

‘경희랜드’의 명성을 이어나가려면

이다빈 기자

davin311@khu.ac.kr



“최대한 주차 안내를 하지만 협조를 안 해줘 답답하다.” 총무팀은 기자에게 하소연을 했다. 학기 중 서울캠퍼스 교통은 혼돈 그 자체다. 입학식 날부터 캠퍼스에 가득한 인파와 차량이 뒤섞인 모습은 소위 말하는 ‘경희랜드’의 환상을 깨버리기에 충분했다.

새내기 시절 어느 교수는 “우리 학교 어떤 것 같나?”라고 질문을 하고는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너무 인간이 많아, 빼글빼글해”라며 불평 섞인 자답을 했다. 헐날리는 벽꽃에 허려 보지 못한 그 ‘빼글빼글’ 한 불평은 2학년이 되고 나자 보이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캠퍼스라는 우리학교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혼잡한 교통 상황은 고질병이었다.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두고,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총무팀만의 잘못일까. 주차요원들은 차량 안내를 위해 캠퍼스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행사가 있는 날이면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한다. 주차요원들은 차량 운전자에게 교내에서는 서행하고 경적을 울리지 말아달라고 안내하지만,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며 걷는 학생들이 지나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큰 행사가 열릴 때면 학교 구성원들에게 차량

이용을 자제하라는 협조를 요청해왔지만, 결국 방문객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캠퍼스 이곳저곳에 이중주차를 한다. 그 와중에 푸른솔 주차장은 자리가 남아도 거리가 멀어 운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누구 한 쪽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총무팀, 차량요일제나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차량 운전자들, 이어폰을 낀 채 핸드폰에만 눈을 박고 활보하는 학생들 모두가 우리학교 교통 문제의 원인이었다.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면한 순간,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했을 때 찾아오는 평안함에 익숙했기 때문이었을까. 무작정 남탓부터 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부끄러워졌다.

고려대와 한국외대를 취재하면서 ‘과연 경희대가 아름다운 캠퍼스일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고려대의 넓은 캠퍼스는 인도와 차도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 곳곳에 표지판이 있었다. 한국외대는 정문에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을 안내해 캠퍼스에서 차량을 보기 어려웠다. 경희랜드의 자부심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

우리의 아름다운 캠퍼스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인들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경희 구성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그저 변명인줄로만 알았던 총무팀의 답변이 가진 의미에 대해 곱씹게 되는 취지였다.

장은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총학생회장 권한정지’를 두고 “본교 학생사회의 민주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사회가 발전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 학생사회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시기인 지금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원론적인 논의와 소통의 방식이 필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개선점을 밝혔다.

한양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보궐 선거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됐다.(서울캠 총학생회 2년째 공석으로 학생자치 위기/대학신문, 2019.3.25.) 이로써 서울캠 총학생회는 2년째 공석을 맡는다. 2019학년도 1학기 중앙집행위원장 강호중 씨는 “총학생회 존재의 당위성 측면에서 학우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총학의 부재로 당장 직면한 축제 준비와 좋은 수업TF 등 학내 문제 처리에도 비상등이 켜진 실정이다.

한국외대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3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를 실시한다.(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실시 공고/외대학보, 2019.3.13.) 지난해 말 정기 선거에서 제53대 총학에 아무도 입후보하지

않아 이번 달 중순부터 재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투표는 4월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화여대에서 지난 26~27일에 학교-학생 정기 협의체 구성을 위한 총투표 ‘이화의 선택’이 진행됐다.(26일 총투표 시작 ‘이화의 선택’은?/이대학보, 2019.3.25.) 총투표는 지난해 학생회직 개정을 통해 새롭게 명시된 최고 의사결정 수단으로, 재학생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 가능하다. 총투표 핵심 요구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와 이화인 그룹 인터뷰를 통해 최종 결정된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수강 신청 개선 및 분반 확충’, ‘대외 이미지 개선 및 고시반 지원’ 등이다.

중앙대 단과대학 보궐선거에서 자연대와 사과대학 생회장 보궐선거가 무산됐다.(단대선거 ‘빼각’ 자연대·사과대 또 무산/대학신문, 2019.3.25.) 자연대는 지난 21일 연장 투표를 진행했지만 최종 투표율 약 49.7%로 개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과대는 후보자 미등록으로 3월 보궐선거 일정이 취소됐다. 이로써 세 번째 선거 무산이다. 학생대표자 부재로 4월에 예정인 전체 학생대표자회의도 차질이 예상된다.

훼손된 ‘연구 정신’

찾아야 할 ‘대학 정신’

세시봉

안수민 (기자)



다시 ‘부실학회’ 논란이다. 지난달 말엽, ‘BIT(비트)’라는 새 부실학회가 언론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비트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 까지 학술 행사를 진행했으며, 471명의 한국 연구자가 포함되어 있어 앞서 논란이 된 WASET(와셋)과 OMICS(오믹스)에 벼금가는 규모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차례 흥역을 끊었던 대학가는 다시금 충격에 빠졌다.

부실학회는 지난해 7월, 와셋과 오믹스라는 이공계 허위 학회들이 세상에 알려지며 문제시됐다. 부실학회는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한 학술대회를 뜻한다. 비용을 지불하면 논문제재가 쉬워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실학회에 의도적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정부 조사 결과 238개 대학교, 4대 과기원, 26개 연구소 중 약 40%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부실학회 참가 행위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유용·논문 출판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당시 우리학교도 부실학회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징계 1명, 경고 2명, 주의 15명의 연구자에 대한 감사가 확정됐다.

또다시 터져 나온 문제 속에서, 언제까지 연구자 스스로의 역량에만 일임해 부실학회를 판단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참고하여 Beall's List(개인 제작 부실학회 명단)을 교수들에게 ‘안내’만 하고 있다. 이외에는 부실학회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응책은 없는 셈이다. 부실학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국가에서 조차 이를 쉽게 구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자는 실수 혹은 모르고 부실학회에서 논문을 게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진실은 알 수 없다.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윤리 덕목을 지켜서 연구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대학은 대표적인 연구 기관이다. 대학은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구행정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논문의 수 중심이 아닌 질 위주로 연구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부실학회 논란이 일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논문실적이 주로 양적 평가로 이뤄져서다. 연구자들은 논문 출판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연구비 수주 경쟁이 늘면서 부실학회에 모르고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지부진한 제도 마련 속에서, 최근 3년간 전 세계 부실 학술저널에 실린 논문 중 한국 연구자의 논문 수는 결국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말았다. 국가단위 R&D 예산이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기술을 도입한다는 나라에서 이러한 수치는 너무나도 부끄럽다. 과학이 진리를 향하도록 연구 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중대한 시점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우 | 편집장 이우승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인터넷기록)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후마는 죽었다 VS 근거없는 억측 오는 5일 공개토론회 예정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서울】 '경희대 비민주적 행정연대 후마구조대(후마구조대)'가 지난달 20일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후마니타스 장례식'을 열고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교과 개편을 비판한데 대해 후마가 반박하고 나섰다.

후마구조대는 장례식 참가자와 함께 캠퍼스를 행진한 뒤 청운관 앞에서 '추도식'을 열고 후마의 이번 개편이 강사법에 대한 구조조정과 비용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이날 정문부터 청운관을 지나 본관으로 행진하면서 "비용축소 중단하고 구성원과 소통하라", "경희대는 강사법을 준수하라",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 폐지 인간다움은 어디에" 등 구호를 외쳤다. 청운관 앞에서는 "삼가 고학(學)의 명복을 빙니다"라는 현수막 앞에서 국화를 헌화하고 주도사를 낭독하기도 했다.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은 청운관으로 들어가던 중 헌화에 동참하기도 했다.

후마구조대, 후마가 비용절감 위해 교육의 질 희생시키고 있다 주장

후마구조대는 지난해 12월, 결성 이후 지금까지 후마의 교과과정 개편을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우사세가 중핵교과에서 제외되고 신설과목 '세계와 시민'으로 통폐합된 것을 두고 후마 교양교육의 핵심이었던 우사세가 교수자, 학생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과정으로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졸업이수학점 축소, 대학영어 수강인원 증가, 필수교과 축소 결정의 진짜 이유가 강사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비판하며 온라인 강의 확대, 개설강의 축소 등 학교가 비용절감을 위해 교육의 질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014년 100여 개의 교양과목을 폐지하고 2015년에는 시간강사 67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전적을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후마니타스 장례식에 대한 한겨레,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자 후마 이영준 학장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자기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과 맞지 않는



후마장례식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교내를 행진한 뒤, 청운관 앞에서 주도사를 낭독하고 국화를 헌화하기도 했다.

억측이 학생들 사이에 훈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후마는 반박하며 억측으로 혼란 조장해선 안된다 비판

후마 측은 먼저 졸업이수학점 축소는 후마와 무관한 일이며 대학영어의 수강인원이 늘어난 것은 빙문을 제외한 필수교과의 수강인원을 25명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준 정원이 20여 명이었던 대학영어는 정원이 늘어났지만 다른 과목은 25명 기준에 맞춰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우사세 폐지에 대해서도 향후 3년 간 우사세를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번 학생을 위해 유지하고 배분이수 과목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사세 폐지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한 교수를 인사 조치로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쟁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오히려가 있었을 뿐, 비대위 구성원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기준 입장을 반복했다.

후마구조대가 근거로 든 2014년 강좌 축소는 교양학부를 후마로 개편하던 당시 학생회 요구에 따라 존치시킨 교양학부 커리큘럼 과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

마 측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교양강의 수는 교양학부 시절이었던 2010년 1,081개인데 비해 후마 출범 직후 2011년부터 2013

년 사이 평균은 1,227개였다. 2014년 1,048 개로 축소된 이후 2018년까지 점차 증가해 2018년에는 1,133개였다. 하지만 이번학기 영어 1, 2 과목이 대학영어로 대체됨에 따라 지난 1학기에 비해 38개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후마구조대가 문제를 제기한 2015년 시간강사 해촉에 대해서도 8학기 제한과 강의평가 반영 등 이유로 재위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 서 2015년 있었던 해촉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모두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혹해소 위해 양측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후마구조대와 후마 양측의 주장이 침에 하게 맞설에 따라 우리신문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혹해소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개토론회는 오는 5일 오후 7시, 청운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사항에 관심 있는 모든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하다.

'매트랩' 불법 다운로드 만연… "오래된 관행"

김재윤 기자 kiy0808@knu.ac.kr

【국제】 교내 공학 관련 수업에 사용되는 'MATLAB(매트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기계공학·전자공학 등 다양한 학과의 전공 수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학교 측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트랩은 행렬을 이용해 수학과 공학 계산을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주로 고성능의 수치 계산 및 결과의 시각화 기능을 제공해 수치 계산이 필요한 이공계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다. 학생용으로 나온 매트랩 소프트웨어를 기본 옵션으로 구매할 때의 가격은 통상 6만 원 선이다. 이 때문에 부담을 느낀 다수의 수강생들은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학교 학생을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얻는 방향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매트랩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과목은 '공학프로그램 입문'과 '신호와 시스템' 등이다. 해당 과목은 대부분 저학년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기초, 전공필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졸업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목이다. 현재 일부 학과에서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전환 중에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수업에서는 매번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수업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박모(기계공학 2015) 씨는 이를 일종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품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부담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다운받았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수업에 참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 교수님은 강의 시간에 불법 경로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라고 직접 말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기 해당 수업을 듣고 있는 A학생은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아직 소프트웨어를 구하지 못했다"며 "다른 학교 친구에게 부탁해 소프트웨어를 얻어 사용할 것이다"고도 말했다.

일부 과목 교수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매트랩의 무료 틀 대체 움직임 역시 잘 전파되지 않거나 가르치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 매트랩의 이용 경험을 중요시하는 시각 등 다양한 이유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공학프로그램 입문 과목을 강의하는 이충업(기계공학) 교수는 "수업 때는 매트랩을 써왔지만, 학교가 아닌 곳에서 실습을

원하거나 과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Octave(옥타브)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권장했다"며 "매트랩과 옥타브는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학부 수준에서는 옥타브를 사용해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 같은 수업을 수강중인 B학생은 "내 지도 교수님은 옥타브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셔서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또 프로그램 틀이란 것이 아무리 비슷해도 약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분야인 만큼, 수업 중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습실 개방을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안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과대학 측은 "실습을 위해 강의실을 전면 개방할 경우, 학생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된다"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업 시간외에는 강의실을 개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정보대학과 응용과학대학의 강의실 개방 시간은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다. 하지만 주말에는 개방되지 않고, 주간에 강의가 있는 시간이 잦아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편 서울대를 비롯한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주요 대학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인 라이선스 구입을 진행해왔다.

아주대 정보시스템팀 이근 직원은 "매트랩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중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다"며 "학교 측에서 필요량이 많은 적든 공식적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불거져온 문제에 대해 대학 본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내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정보처 이재영 직원은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사항은 정보처, 재정예산처, 단과대학이 심도있는 상의 후에 결정한다"며 "특정과목 쓰는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라이선스로 구매하는 것이 무리가 따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교수 또한 "학과에서 매트랩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기에는 학교의 비용 측면이 부담될 것이라 생각해 요청을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단기간의 해결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2019학년도 1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다전공 신청 및 취소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 시험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포기기간: 2019. 4. 2(화) ~ 4. 5(금)

■ 다전공 신청 안내

- 신청대상: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2학기 이상 등록을 펼하고 재학 중인 자
 - 2005학년도 이후 전 입학자는 신청만으로 이수신청을 승인함
 - 국제캠퍼스 학생 중 서울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신청하는 학생도 동일하게 신청함
 - 서울캠퍼스 학생 중 국제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제 학사지원팀 안내문 참조
 - 다전공은 제3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음(본인의 전공 외에 2개 전공의 다전공 가능)
 -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8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 호텔관광대학 학생의 등일학부 내 다전공 신청은 호텔관광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 다전공 선발 인원(첨부 정원 참조)
 - 1) 전년도 (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 ※ 경영대학과는 전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을 서울, 국제 캠퍼스별로 각각 선발함
 - 2) 연간 선발 인원으로 1학기 선발 후 전년도 1학기 선발 인원을 2학기에 선발함
 - 3) 학부 내 다전공 신청자와 연계전공 신청자는 인원 제한 없음
 - 4) 다전공 선발 기준: 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별로 선발함
 - ※ 경영대학 다전공 신청 자격기준
 - 경영학전공: 전학년 평점평균 3.30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 회계세무학전공: 전학년 평점평균 3.0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 다전공 선발 학과(첨부 선발 정원 및 다전공 이수불가 전공 참조)
 - 1) 다전공 이수는 문과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국제캠퍼스 소속 대학에 설치된 전공을 대상으로 함. 단, 폐지된 전공,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와 국제캠퍼스

2019학년도 1학기 본전공(제1전공) 선택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본전공(제1전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 제2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9. 4. 2(화) ~ 4. 5(금)

■ 신청대상

- 학부(과) 단위 입학생 중 세부전공 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
 - 1) 해당학부: 영어학부, 법학부, 사회과학부, 언론정보학부, 언론정보학과 (2010학년도 입학자), 경영학부, 관광학부(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생활과학부
 - 2) 예외학부: 전공배정제와 전공 확정제를 실시하는 학부, 호텔관광대학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자율전공학과, 미술학부, 무용학부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제1전공" 란에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제3전공)까지 선택 가능) → "저장" 클릭
 - ※ 학부편제로 소속되어 있는 학생 중 제3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제1전공 신청 후 제2전공 신청을 진행해야 함
- 신청한 본전공 및 다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2개 트랙까지 신청가능)
 - 1) 전공 신청정보에 "신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 2) 전공 신청정보에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 유의사항

- 본전공(제1전공)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 매 학기 본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한 전공을 변경할 수 있음
 - ※ 본전공 관련 세부 문의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때 아닌 도서관 자리 부족…알고 보니 노쇼족 때문

홍연지 기자 lotuspond@khu.ac.kr

【서울】 중앙도서관 열람실 자리를 예약해놓고 실제로는 자리를 비워놓거나 반납을 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 사례가 속출해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을 이용하려 했던 이현재(무역학 2018) 씨는 빈자리가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가능한 여석이 없어 의문이 생겼다. 이 씨는 “시스템 상에서는 좌석 예약이 꽉 차 있어도 막상 열람실에 가면 빈자리가 절반이 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노쇼 때문에 회전율이 떨어져 좌석 예약이 힘들어지고, 좌석 예약이 힘들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예약을 하고 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소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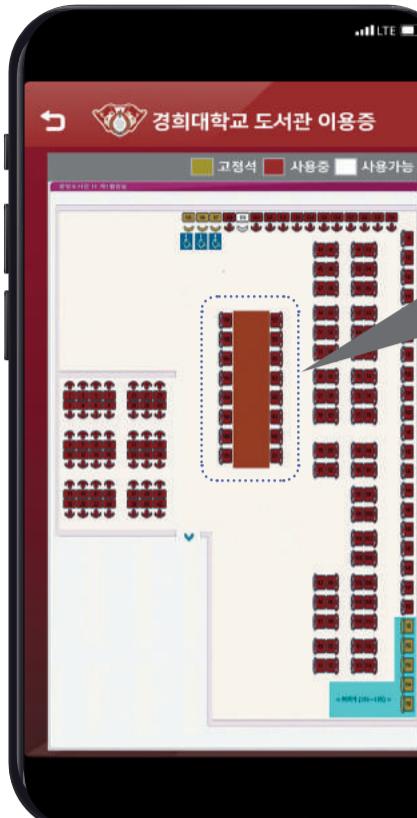
실제 지난달 28일 중앙도서관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이 예약 중인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10시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 전체 좌석 171석 중 예약된 좌석은 170석이었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생은 70명에 불과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예약된 171석 중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생들은 73명에 불과했다.

노쇼의 유형도 다양하다. 가장 많은 유형은 좌석 대여 상태에서 밥을 먹으러 가거나 수업을 듣는 등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유형이다. 도서관 이용자가 많아지는 오후에는 좌석 예약이 힘들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른 시간에 예약을 하고 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예약이 가능한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리를 계속 독점하기 위해 전공 서적과 학용품을 비롯한 개인 물품들을 쌓아 놓는 이른바 ‘사석화’ 사례도 적지 않다.

도서관자치위원회 측은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사석화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적발되거나 신고가 들어온 경우, 사전경고 없이 개인 물품 수거 및 한 달 간 이용제재 처리될 수 있다”는 쪽지를 남기는 등 예방책을 강구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서관자치위원회 김지연(영어영문학 2016) 위원장은 “열람실 노쇼와 사석화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책갈피나 판넬 등을 제작해 홍보했다”며 “SNS를 통해 여러 이벤트까지 진행해왔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열람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자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주형(철학 2015) 씨는 “공용 자원인 열람



모바일 좌석 예약 시스템에는 제1열람실 대부분이 사용중인 것으로 되어있지만 동시간대 절반 가량의 학생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모습이다.

“

5월 말 출입 게이트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도서관 출입 현황과
발권 시스템을 연동할 계획

”

실 좌석이 심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 같다”며 “불편을 떠안는 다른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식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일시적인 권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며 “좌석 예약 시스템 상의 제재가 있어야 노쇼를 막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열람실 시스템이 문제”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출입게이트와 도서관 열람실 좌석을 연동해서 외출 후 1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자동반납처리를 하는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고가 3회 누적될 시 열람실을 1달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열람실 좌석은 한 번 예약으로 3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남은 대여 시간이 60분 미만일 때부터 다시 3시간 동안, 최대 8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외출 후 일정 시간 재입실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등의 제재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도서관 출입 게이트와 발권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중도에 들어갈 때에는 출입 게이트에 학생증을 인식해야 하지만 나갈 때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

하지 않다. 좌석 예약을 해두고 도서관 밖으로 나가서 장시간 좌석을 비워도 시스템은 이 사람의 퇴실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일단 좌석을 예약하고 끼니를 해결하려거나 수업을 들으러 가는 등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여기에 도서관 좌석 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사용자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도서관은 ‘모바일 도서관 이용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서관 출입, 도서대여, 좌석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좌석 예약과 ‘발권 확정’을 위해선 어플리케이션에서 좌석 예약을 하고 15분 안에 도서관 와이파이에 접속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폰은 운영체제의 보안 정책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도서관의 IP주소를 파악하지 못한다. 때문에 도서관이 아닌 교내 와이파이존 어디에서나 발권 확정이 가능해 허위 예약이 더욱 용이해진다.

중앙대는 열람실을 원활히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다. 중앙대 도서관은 입실뿐 아니라 퇴실 시에도 출입 게이트에 학생증을 인식해야 한다. 좌석 예약 20분 이내에 게이트를 통과해야 발권이 확정되며, 좌석 예약을 한 상태에서 퇴실한 뒤 90분 내로 도서관에 돌아오지 않으면 좌석은 자동 반납된다. 연세대 또한 시험기간에 한해 도서관 퇴실 후

140분이 지나면 예약한 좌석이 자동으로 반납되는 규정이 있다.

이용을 마쳤지만 반납을 하지 않는 것도 ‘예약된 빈자리’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선 “1열 안 쓰시는 분 반납 부탁드린다”, “집에 간 사람은 많지만 반납한 사람은 얼마 없다”며 좌석 반납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좌석 반납을 의무화한 대학도 있다. 이화여대는 좌석 발권시간이 끝나기 전 예약 연장을 하거나 반납을 의무화했다. 학기당 좌석 3회 미반납 시 10일 간 좌석 발급을 중지한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대와 세종대 등 여러 대학이 좌석 반납 의무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은 반납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황일원 과장은 “강제 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5월 말 출입 게이트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도서관 출입 현황과 좌석 발권 시스템을 연동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당장 오는 4월 중간고사 기간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사용자들로 인한 불편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 70 Initiatives(이니셔티브즈) 학생그룹 모집



경희대학교 개교 70주년 사무국에서 경희 70 Initiatives(이니셔티브즈) 학생그룹을 모집합니다. 경희 70 이니셔티브즈는 본교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학생 홍보대사 및 자원봉사 활동 그룹으로, 2019학년도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다양한 70주년 기념 행사에 자원봉사 활동 및 홍보대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 개요

- 활동기간 : 2019학년도 (2019년 4월 ~ 2020년 2월) (활동기간 1학기, 1년 중 선택가능)
- 활동내용
 - 1)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 자원봉사
 - 경희 감사의 밤 및 문화공연(5월)
 - 70주년 기념식(5월)
 - 70주년 기념 Peace BAR Festival(9월)
 - Magnolia 2019(12월)
 - 기타 70주년 관련 행사 발생 시 수시 봉사활동 진행
 - 2) 개교 70주년 관련 홍보 프로젝트
 - 조별 프로젝트 수행, 각 조마다 자유 방식으로 경희대학교 70주년 홍보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1학기 당 1회)
- 혜택
 - 1) 활동자 전원 단체복 지급(하게: T-Shirt, 동계: 점퍼)
 - 2) 활동 시간만큼 봉사시간 인정(사회봉사 학점인정 가능)

3) 회의 및 봉사활동 등 소집 시 식사 제공

4) 활동증명서 발급

5) 개교 70주년 홍보과제 우수 인원(팀) 시상

• 지원자격

- 1) 경희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2) 최소 1개 학기 활동 가능한 학생

※ SNS 능통자, 컨텐츠 제작 및 홍보 관련 활동 경험자 우대

■ 모집일정

- 지원기간 : 2019년 3월 27일(수) ~ 4월 7일(일)

- 지원방법 : 구글 폼을 통한 지원서 제출 (구글 폼은 하단 3가지 채널을 통해 접근 가능)

1)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2) 70주년 공식 인스타그램(@khu_70th)

3) 70주년 기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카카오톡 친구검색에서 ‘경희대학교 개교 70주년’ 검색)

- 면접대상자 발표 : 개별 통지

- 면접일자 : 2019년 4월 중

※ 시간 및 장소는 면접대상자 발표 시 공지

- 오리엔테이션 및 발족식 : 2019년 4월 예정(추후 공지)

■ 문의

-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사무국 김현수 담당 (본관 410호, 02-961-2370~2, 70th@khu.ac.kr)

탐사기획

인도와 차도 구분 없는 서울캠, 교통사고 날까 ‘조마조마’

이다빈 기자 davin311@knu.ac.kr
배지현 기자 fleitjsdp@knu.ac.kr

【서울】 서울캠퍼스(서울캠)에는 교내로 진입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섞여 위험한 순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학 내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건, 연평균 약 1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고려대에서 길을 가던 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2018년 3월에는 이화여대에서 길 맞은편으로 건너가던 신입생이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려던 차량에 부딪혀 의식을 잃은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학교도 안전 구역은 아니다. 졸업생 A씨는 지난 2012년 청운관에서 정경대학으로 가던 중 헐떡고개에서 뒤따라오던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왼쪽 팔꿈치를 부딪혀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인도와 차도가 불명확한 도로에서 차량과 학생들이 뒤섞여 사고가 날 뻔 했던 적이 많았다”며 “실제로 사고가 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 후 6년이 지난 지금의 캠퍼스 교통 환경 또한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부족한 차도와 인도의 명확한 구분이다. 정경대학에서 전공 수업을 듣는 이동준(언론정보학 2018) 씨는 “헐떡고개를 올라가는 부근에서 차량과 부딪힐까봐 걱정된다”며 “특히 정경대학 앞은 학생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인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보니 매우 위험하다”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현재 서울캠에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길은 정문-청운관, 헐떡고개, 신축단과대학동 앞, 교시탑-미술대학뿐이다. 학교는 2015년 정문관 앞 보도, 2016년 네오 브리지-교시탑 앞 보도를 확장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교시탑 사거리에서 경희초등학교, 미술대학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했다. 하지 만 헐떡고개 위 잘살기탑에서 구 한의대 건물로 가는 길, 신축단과대학동에서 무용대와 주차장으로 가는 내리막길 등 여전히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길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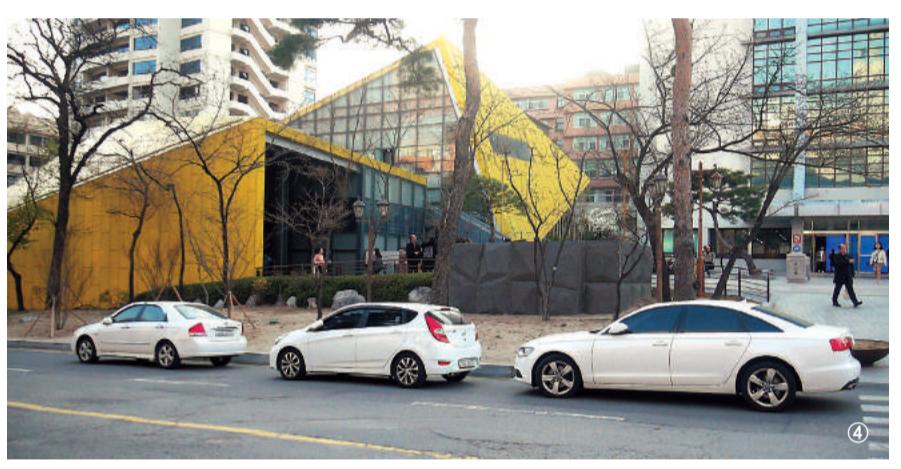
특히 많은 재학생에 비해 도로가 좁은 정경대는 학생들과 차량의 충돌 위험이 가장 크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은 1차선의 너비를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경대 앞 도로의 폭은 약 6.3미터였다. 차량이 교행하며 사



① 정경대 앞 도로는 차량이 교행하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좁다.
② 논술고사처럼 인파가 모이는 날이면 차량과 행인이 뒤섞여 통행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사진은 지난해 논술고사날이다.
③ 연세대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지상에서 차를 없앴다.
④ 주차공간 부족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② 논술고사처럼 인파가 모이는 날이면 차량과 행인이 뒤섞여 통행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사진은 지난해 논술고사날이다.
③ 연세대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지상에서 차를 없앴다.
④ 주차공간 부족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람까지 통행하면 여유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총무관리처 총무팀 이희포 팀장은 “잘살기탑에서 구 한의대 건물로 가는 길의 특성상 도로가 좁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명확히 차도를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교내에 차량 통행에 대한 별도의 표지판이 없는 것도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주차요원은 “정문에 경희의료원과 학교 진입로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어 병원으로 갈 차량이 교내로 들어와 교내 교통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차선표시와 속도제한 안내 등도 부족해 차량과 통행하는 학생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정승원(정치외교학 2017) 씨는 “퀵이나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교내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나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점심시간과 수업이 끝난 시간에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데 빨리 지나가는 차량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총무팀은 캠퍼스 내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해 차량 요일제를 시행중이다. 위반하는 차량은 출입구 게이트에서 자동으로 체크하고 학기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다음 학기 정기권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 아

웃제도도 실시중이다.

연세대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캠퍼스에서 차를 없앴다. 연세대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백양로삼거리에서 정문까지의 길인 ‘백양로’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녹지의 보행로를 조성했다. 완벽한 보차분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낙후된 조경과 경관까지 개선했다.

연세대 재학생 오창록 씨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이후 차량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보니 학내 차량 통행이 적어 안전성이 보장 된다”며 “녹지공간이다 보니 봄에 벚꽃도 피는 등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좋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어려운 서울캠의 현실에서, 보행자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스마트폰만 보거나 이어폰을 낀 채 교통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보행자의 모습을 허락할 수 있다. 의명의 주차요원은 “교내에서는 경적을 못 울리게 하는데 이어폰을 끼고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차가 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생긴

다”라며 보행자와 차량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운전자 신호 씨는 “따로 신호체계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눈치 보면서 통행한다”며 “교내에서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 하려고 노력했지만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나오거나 앞을 막아 놀란 적이 많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행자는 차가 당연히 비켜주거나 멈춰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닌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사유지로 지정돼 학교가 자율적으로 단속과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일반도로와 달리 도로교통안전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학내 도로에선 사고가 일어나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기에 운전자 과실이 명백해도 형사처분이 쉽지 않고 사고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도 어렵다. 캠퍼스 내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노력 또한 필요한 이유다.

2019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 개요

- 훈련대상 :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 자원 중 1~6년차 예비군 전원
- 훈련장소 : 용인예비군훈련장(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북동로 87 / 네비게이션 : 바른고기 검색)
- 훈련일시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간
4월 8일(월)	• 전자정보대학 • 특수대학원(교육, 아트-퓨전, 테크노경영)	
4월 9일(화)	• 공과대학 : 건축공학, 건축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화학공학	
4월 10일(수)	• 공과대학 : 산업경영공학, 환경학 및 환경공학 • 체육대학	
4월 12일(금)	• 공과대학 : 기계공학, 원자력공학	09:00~18:00
5월 2일(목)	• 동서의과학과 · 생명과학대학 • 외국어대학 • 전문대학원(동서의학, 국제, 체육)	
5월 3일(금)	• 국제대학 · 음용과학대학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5월 7일(화)	• 교직원 · 일반대학원 • 예술 · 디자인대학	

■ 준비물

-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착용 시 입소 불가)
※ 전투복, 전투화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휴대하고 참석한 경우만 현지 대여 가능함
-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입소불가

■ 교통 안내

- 학교 지원차량 : 학교정문 출발(7:50분)
※ 강남역 지원차량 없음
- 개인 입소자는 학교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병소에 도착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북동로 87
(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산 64번지)
- 네비게이션 : 바른고기(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 대중교통편

서울 - 용인(광역버스)	수원/신갈 - 용인(시내버스)
5001, 5001-1, 5002 : 강남, 양재 - 용인터미널	66: 수원 - 용인
5600 : 강변 - 광교 - 용인터미널	66-4: 수원 - 용인
5005 : 광화문 - 용인터미널	10, 10-5: 수원 - 용인

■ 유의 사항

-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 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 · 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 대상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훈련 2주전 공지)
- 훈련 입소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입소가 불가하니 훈련 전 음주행위 자제
- 입소통제 지침 : 09:00이후 지연도착자는 입소불가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됨
- 교통비(7,000원) 지급방법 변경 : 현금 → 계좌이체로 변경(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 예비군홈페이지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되오니 희망하는 계좌 또는 휴면 계좌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학적변동(휴학, 졸업 / 수료 등)으로 재학 중이 아닌 학생예비군은 훈련참석 불가
- 기타 훈련에 의문 사항이 있을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약주와 독주 사이, 답은 '절주'

교수칼럼



김기애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교수

“술 한 잔 하자.” 새 학기가 시작되면 캠퍼스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로 시작한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음에 술이나 한 잔 하자”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학기의 시작과 끝은 항상 술과 함께한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은 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우리나라 성인은 남자 73%, 여자 49%로 집계됐으며, 특히 20~30대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오랜 시간 지속된 과음은 여러 신체 질환을 일으키지만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이를 간과한 채 즐거운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그렇다면 과도한 음주는 어떤 질병으로 이어질까?

알코올 간질환의 위험성

대표적으로 알코올 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알코올 간질환은 전체 간질환의 약 13~14% 정도로 추정된다. 알코올 간질환에는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 간염, 알코올 간경변증이 있는데, 알코올 간질환의 경우 총 알코올 섭취량이 가장 중요하다. 알코올 지방간은 과음자의 80~90%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이는 금주 시 완전 회복이 가능하다. 알코올 간염의 경우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드물게 중증 알코올 간염으로 진행 할 경우 황달이 발생하는 등 예후가 매우 불량할 수도 있다. 알코올 간염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음주를 하면, 간이 딱딱해지거나 크기가 위축되어 간경변증으로 진행 할 수 있고, 이 경우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이들은 간세포 암으



(사진=중앙일보 DB)

로 진행 할 수도 있다. 음주는 한국인 간경변증과 간세포 암의 원인으로서 각각 2위, 3위에 해당하고, 한 해 알코올 관련 사망 자수만 해도 10만 명당 9.6명에 달한다.

절대적인 섭취량이 중요해

아직 알코올 간질환의 자연 경과는 명확하지 않으나, 알코올의 섭취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알코올 간질환의 위험도는 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총 알코올 소비량에 따라 증가한다. 알코올 간질환은 간 헐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보다 매일 마시는 경우에 그 위험이 높으며, 폭 음(2시간 안에 남자 5잔 이상, 여자 4잔 이상)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빈 속에 마시는 술, 여러 군데를 전전하며 마시는 술, 여러 종류를 섞어서 마시는 술의 경우 간질환의 위험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이른 나이에 술을 시작하는 경우도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같은 양의 음주를 한다 하더라도 간질환에 더 취약하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

의 위에 알코올 탈수소효소가 적어 첫 단계에서부터 대사가 적고, 따라서 알코올의 생체 이용도가 증가해 간 손상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높은 체지방 비율에 더해, 에스트로겐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더해지면 여성의 몸은 남성에 비해 알코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흡연 역시 알코올 간경변증의 위험인자로 꼽히며, 비만도 알코올 유발 간 손상의 중증도를 증가시킨다.

알코올 남용의 폐해

음주행태는 음주량과 음주 습관에 따라 적정음주, 과음, 폭음, 위험 음주, 유해음주 등으로 나뉜다. 세계 보건기구(WHO)에서는 하루에 남성 40~60g, 여성 20~40g 이상 마시는 경우를 위험 음주로 정의하는데, 이를 환산하면 남성 소주 약 1병, 여성 소주 약 반 병에 해당한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최근 1년 이내에 음주로 인해 야기된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문제점이나 폐해에 초점을 두어 진단하며,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으로

구분한다. 알코올 남용은 음주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반복적인 악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하는 경우이며, 주로 알코올 의존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알코올 의존은 술에 대한 내성, 금단 증상, 사회생활의 장애, 음주 조절 능력 상실 등 음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장애와 폐해가 발행한 경우로, 알코올에 육체적인 의존이 있는 경우이다.

술의 '위험성'을 인지하자

지나친 음주는 알코올 간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외에도 알코올 치매, 베르니케 뇌증, 화장성 심근증, 폐렴, 위 심이지장 궤양, 퀘장염, 당 조절 장애, 성기능 장애, 태아기형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건강을 위협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술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또한 변화의 추세에 있다.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는 만큼, 그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건강한 음주 문화의 확립이 필요하다.

참여마당

최해람
한국어학 2017



한 번쯤은 무모하게

“휴학하고 뭐 했어?” “나 이란 갔다 왔어.” “이란? 거기 위험하지 않아?” 이번 학기 복학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다. 작년 한 해 생소한 나라 이란에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우리나라에서 이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고, 여자가 가기에는 위험한 나라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란은 매력적인 나라였다.

처음 이란을 접한 건 지난 2017년 여름이었다. 원래 계획했던 여행지에 갈 수 없게 되면서 급하게 계획을 변경해 항한 나라가 이란이었다. 생소한 언어와 히잡을 꼭 써야 하는 이란의 법이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해 가면서 한국 뉴스에서 보지 못했던 이란의 ‘정’을 보게 되었다. 길을 해매는 우리를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들과 자신의 집에 처음 본 우리를 초대해 밥을 해주고 함께 노는 그들의 순수함을 보며 그 나라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그곳에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는 바로 다음 학기인 2018년 1월, 이란의 한 어학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실 그곳에 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유학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충분한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하나님나다 직접 알아보고 연락하고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마침 이란에 가고 나서 보니 준비과정에서 겪은 우여곡절은 새 밭의 피에 불과했다. 이란에서 부딪힌 가장 큰 어려움은 ‘인종차별’이었다. 길거리에서 당하는 조롱과 서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불이익들은 그곳에서의 생활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게 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한국을 사랑하는 나의 이란 친구들’이었다.

이란에는 지금 엄청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시작은 드라마 <주몽>이었다. 그리고 그 한류는 지금 K-pop과 K-드라마, 그리고 K-뷰티로 확산되었다. 그 친구들은 한국을 너무 사랑했고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에게도 엄청난 사랑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애정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해 김밥이나 김자전 같은 한국 음식을 대접하거나, 한국어를 가르쳐 주거나, 한국 게임을 같이 했다. 그건 그 친구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점차 친구들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생기기도 했다.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덕분에 목표했던 이란에 실력도 많이 키울 수 있었다.

다사다난했던 1년의 생활이 끝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1년의 삶을 돌아보며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내가 그곳에서 이란 친구들과 했던 행동이 ‘공공외교’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곳에서 수많은 지한파를 넣었고 그 친구들 스스로는 또 다른 지한파를 넣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공공외교에 큰 관심이 생겨 지금은 대학생 공공외교단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내가 만약 작년에 이란에 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무모했던 도전이었고 실제로 ‘맨땅에 헤딩’과 같은 생활을 하다 왔지만 그 경험은 내게 야생성을 길러주었고 공공외교라는 새로운 길을 알려주었고 꿈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싶다.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 주춤하고 있는 지금, 어쩌면 무모함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①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축구 콘텐츠 블루칩, 새로운 바람 일으킨 ‘경희대 구녀’

박재령 기자 kpparr@khu.ac.kr

슛 포 러브는 축구를 통해 기부 활동을 하는 캠페인 단체다. 현재 유튜브에 축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독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한다. 축구 행사 및 국제대회에서 취재 및 홍보 활동도 하며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슛 포 러브의 중심에는 정이수(식물환경신소재공학 2013) 동문이 자리하고 있다. 방송 출연과 콘텐츠 기획 등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며 활약 중인 정동문은 시종일관 ‘덕업일치(좋아하는 활동과 직업이 일치함)’를 강조했다.

정동문은 일명 ‘경희대 구녀’로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중이다. ‘구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 아스날의 팬을 지칭하는 말이다. 정동문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와 함께했다. 초등학교 때 떠났던 캐나다 유학 시절, 인기를 끌던 해외축구를 어깨 너머로 보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다. 정동문은 “한창 박지성 선수가 영국 리그에서 활동해 해외축구가 유행했다”며 “같이 지내던 한인들끼리 모여 응원하며 축구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동문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2년 전 축구팀 아스날에 대한 온라인 애플을 읽는 영상에 출연하면서부터다. 당시 영상은 조회수 157만 회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순수하게 팀을 좋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웃음 포인트가 되어 영상에 묻어 나왔던 것 같다”며 “좋아해주시는 분들에게 한 없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시절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동문은 “별에 대한 수업인 빅뱅에서 문명까지와 조별과제가 많았던 시민교육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방송은 생각지도 못한 분야였다. 첫 출연도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다. 정동문은 “3년 쯤 전에 슛 포 러브를 운영하는 사촌 오빠에게 일손을 보태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기록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열렬 결에 MC를 보게 된 것이 첫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순수하게 축구를 좋아하는 모습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화제가 됐다. 많은 사랑을 받자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던 정동문은 SBS 풋볼 매거진 골 라이브에서 리포터 제안을 받았다. 전국 K리그 구단을 돌며 취재 및 홍보를 하는 역할이었다. 정동문은 “흔자



정이수 동문은 유튜브 채널 슛 포 러브와 풋볼 매거진 골에서 활동중이다.

“

동문이라고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분들과 영상을
보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서 진행을 하다 보니 부담감이 있었지만 하고나니 추억이 많이 생겼다”며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랑 전국을 돌며 같이 축구 경기를 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고 웃음 지었다.

해외 선수들을 통역했던 일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TV로만 보던 선수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정동문은 “SBS로부터 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통역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며 “그 때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유명 해외 선수를 실물로 봤다”고 말했다. 추억이 쌓일수록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애정은 커졌다.

그리나 어려움은 항상 있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늘 떨렸다. 정동문은 “출연이 익숙하지 않아 많이 서툴다”며 “촬영에 임할 때마다 느껴지는 부담감은 아직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특성 상 몸을 쓰는 일이 많은데 최근 들어 체력적인 부담을 느낀다”고도 덧붙였다.

방송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힘은 사람들에 있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아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정동문은 함께 촬영했던 축구선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촬영 시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따뜻했지만 특히 염기훈 선수와 조원희 선수가 기억에 남는다”며 “항상

축구를 위해 힘 써줘서 고맙다는 말을 선수들에게 직접 들으니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활동하면서 얻는 뿌듯함도 큰 힘이 됐다. 정동문은 “슛 포 러브의 처음 기획 의도는 기부였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재밌는 영상을 통해 기부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슛 포 러브는 실제로 자생한방병원 등 많은 후원사들과 함께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도 적성에 맞았다.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주로 출연보다 기획하는 일이었다. 재학생 시절 참여했던 이색체험 동아리가 콘텐츠를 구상하는데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됐다. 정동문은 “어떤 활동을 하며 놀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하는 일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심 분야는 ‘유튜브 시대’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냈다. 이제 유튜브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매체가 됐다. 정동문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며 “언제 어디에서나 큰 장벽 없이 영상을 제작하고 올릴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슛 포 러브가 사랑받은 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많

은데 부담 없이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익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정동문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영상이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는 꼭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취미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자연스러운 영상이 반응이 뜨거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동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덕업 일치’로 표현했다. 팬으로서 좋아하는 일인 축구 ‘덕질’과 축구 콘텐츠를 다루는 지금의 직업이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행운이라고 여기며 행복하게 일하다보니 소망도 하나 생겼다. 스포츠 뉴미디어 방면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정동문은 “지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축구 콘텐츠 계의 큰 흐를 긋고 싶다”며 “출연 뿐 아니라 기획, 편집, 체력 단련 등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꿈을 이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잊지 않았다. “편집자 분이 경희대 구녀라고 자막을 쓰셔서 본의 아니게 우리학교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웃음 지은 정동문은 “동문이라고 따뜻하게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9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 개설강의
- 참여대상
- 신청기간
- 장학금
- 문의

2019.07.05 ~ 08.01 [4주간]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18개 강의 (GC홈페이지 참조)
국내외 대학(원)생
2019.03.11 ~ 05.10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 (추후 공지예정)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cep>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